

#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ASEAN and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강영문(Young-Moon Kang)

전남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아세안 변화의 정치경제적 접근       | 참고문헌     |
| III. 아세안의 한계와 아세안 경제통합의 평가 | ABSTRACT |
| IV. 한아세안 Win-Win 통상협력전략    |          |

## 국문초록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통해 거대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면 아세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 정책, ODA 정책, 기업의 투자는 아세안의 변화와 변화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의 통상파트너로서 아세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한아세안 통상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아세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아세안, 아세안 경제공동체, 자유무역협정.

\*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한국동남아학회의 2011년도 한아세안 학술교류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I. 서론

아세안은 동남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동남아 10개국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이다. 아세안은 정치안보적 목적에서 출발하였지만, 인도차이나반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과 아세안 가입으로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이 핵심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은 국제통상무대에서 주요수출시장, 생산기지, 원료공급지, 소비시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통상관계에서도 아세안은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이고, 투자대상 지역이다. 특히 통상 경쟁국가인 한중일의 통상격전지이다. 아세안은 한중일에게 경쟁 지역임과 동시에 담보상태에 있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동안 한국이 아세안을 보는 시각은 상품수출지, 원료공급지, 저임의 생산기지로만 간주되었다.

이제 아세안은 국제통상무대에서 거대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면 아세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정책, 기업의 투자는 아세안의 변화와 변화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아세안에 관한 연구는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의 다른 해외지역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하였고, 아세안의 연구도 아세안의 정치적 배경과 AFTA에 집중되었다.

특히 아세안이 동아시아 FTA와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변모된 이후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무역과 투자, 안정적인 원료공급지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FTA 전략에서 중요한 통상파트너인 아세안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한아세안의 미래지향적이고,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상협력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아세안 변화의 정치경제적 접근

아세안은 동남아 11개국중에서 최근 독립한 동티모를 제외한 10개국이 회원국이다. 국제통상에서 아세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아세안이 단일시장으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개국의 통상정책과 제도가 독립적이지만, 상당부분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견이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후 성장과 역동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sup>1)</sup>. 아세안은 회원국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효율적인 통상협력을 통한 상호공동의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아세안의 변화과정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1. 정치안보 목적의 아세안

최근들어 아세안은 개발도상국가들간의 성공적인 지역협력 모델로서 평가되고 있다. 아세안은 경제적 요인보다 동남아 지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탄생되었다<sup>2)</sup>.

아세안 선언에는 아세안의 설립 목적을 아세안 지역의 경제성장, 사회적 진보, 문화발전 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초창기 아세안의 설립목적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협력이었다<sup>3)</sup>.

아세안의 출발은 1961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국의 연합인 ASA(Association of Southeast Asia)로 볼 수 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아세안의 공식출범은 베트남전쟁이 한참이던 1967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외교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선언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선발아세안 국가인 브루나이는 198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세안에 가입하였다<sup>4)</sup>

아세안의 출발은 동남아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공동번영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갖고 출범하였으나<sup>5)</sup> 큰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신생독립국들이던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첨예했던 시대에 약소국들이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한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의미는 크다.

초창기 아세안이 출범이후 협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당시 국제통상환경이 아세안 각국이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상호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신생독립국가의 상황으로 내부결속이 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아세안은 1970년대 베트남의 공산화에 따른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산화 도미노 현상이 동남아에 발생하면서 안보공동체로서 결속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1980년대 구소련의 붕괴와 동

1) Yen Kyun Wang, Overview of ASEAN-South Korea Economic Relations, ASEAN and Korea Emerging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ISEAS, 1995, p.19.

2) Nitya Pibulsonggram, Strengthening ASEAN Integ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2001, p.17.

3) Termsak Chalermpananup, ASEAN Political Cooperation, Strengthening ASEAN Integ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2001, p.105.

4) Lee Poh Ping, ASEAN, South Korea, and the Asia-Pacific Region, ASEAN and Korea Emerging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ISEAS, 1995, p.21.

5) ISEAS, Know Your ASEAN, 2012. p.2.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 체제전환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권 국가인 베트남, 라오스 등도 시장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아세안은 기존의 안보협력체제에서 경제협력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선발아세안 국가들에게 위협의 대상이었던 인도차이나 반도의 사회주의 국가들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모두 아세안 회원국이 되면서 아세안의 최대 이슈는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세안은 두그룹으로 분류한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 5개국과 1980년대 가입한 브루나이를 포함하여 선발아세안 6개국으로 부르며, 그 이후 가입한 나머지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영문명의 앞자를 따서 CLMV국가라고 부른다. 아세안은 1999년 캄보디아가 마지막으로 아세안에 가입함으로써 하나의 아세안(One ASEAN)이 완성되었다.

## 2. 안보협력에서 경제협력체로 전환

아세안은 1967년 출범된 후 10여년간 정상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지만, 1976년과 1977년 1차,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sup>6)</sup> 아세안은 1976년 발리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첫번째 시도는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특정 국가가 특정공업에 특화하는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정부주도의 아세안 공업프로젝트(AIP: Asean Industrial Projects)가 1976년 출범하였다<sup>7)</sup>.

AIP 이후 아세안의 경제협력계획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소형 프로젝트로 전환되었고, 공공협력에서 민간협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기존의 아세안 협력은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많았지만, AIP는 단지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국들만 참여하는 프로젝트였다. AIP로 인해 아세안의 산업협력은 좀더 유연해지고 실용성이 강해졌다<sup>8)</sup>.

또한 아세안은 1977년에 역내 무역확대를 위해 회원국간에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우대관세율을 적용하는 아세안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하였다<sup>9)</sup>. 이처럼 아세안의 경제협력은 초기 국가별 역점산업을 발전시키는 시도를 하였으나 자국이기주의의 벽을 넘지못하고

6) 아세안은 매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등을 개최한다. 정상회의를 주체하는 의장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영문 알파벳 순서로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박변순, “아세안 경제협력의 진화와 평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연구』 23권 2호, 한국동남아학회, 2013, p.4).

7) 아세안의 선발5개국은 다음과 같이 각각의 산업에 특화하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요소산업에 특화했고, 필리핀은 과인산비료산업, 싱가포르의 디젤엔진산업, 태국은 소다회산산업에 특화했다(김준협, “아세안+3 지역경제통합의 조건과 발전과정”, 『동남아시아 연구』 21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2011, p.220: ASEAN Secretariat, ASEAN Investment Report, 1981, pp.7-10).

8) Paul J Davidson, ASEAN The Evolving Legal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Times Academic Press, 2002, p.126.

9) ASEAN Secretariat, ASEAN Investment Report, 1997, pp.2-5

당초 계획한 5개의 프로젝트중에서 2개만 진전시키다가 별성과 없이 지지부진하였다.特惠무역협정도 1981년까지 10% 관세인하에 머물렀다.<sup>10)</sup> 또한 아세안 국가들의 PTA 활용율은 매우 낮았고 역내 수출비중도 1988년 18%정도에 불과했다<sup>11)</sup>

초창기 아세안의 경제협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회원국들의 경제공동체 의식 결여에 있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기술력, 자본력이 상호 협력할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러한 지역의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제협력의 틀안에 정부주도의 아세안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공업선진국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품산업 개발 협력 프로그램인 아세안공업합작(AIJV)을 추진하였다<sup>12)</sup>.

그러나 19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에 따른 아세안 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에 따른 선발 아세안 국가들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아세안 각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세안 경제협력보다는 각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더욱 집중하였다<sup>13)</sup>.

### 3. 아세안의 역내 경제통합

아세안의 실물경제 협력이 가시화된 것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가 형성된 이후이다<sup>14)</sup>. AFTA는 아세안을 단일시장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로도 부른다. AFTA는 선발 아세안 6개국이 EU와 NAFTA의 단일시장화와 세계 경제의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1월 출범시켰다.

AFTA는 1997년 추진하였던 PTA와 달리 아세안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여 상품관세를 인하는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도입하였다<sup>15)</sup>. 아세안 선발 6개국은 2010년 공동특혜관세(CEPT)에 포함된 모든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이는 아세안 역내에서 거래되는 전체 제품의 99%에 해당된다.

이로인해 아세안의 역내 평균관세는 2000년 4.4%에서 2010년 0.9%로 낮아졌다. 또한 아세

10) Hill Hal & Jaynt Menon, ASEAN economic integration: features fulfillments and the failures and the future. ADB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Integration, No.6. Manila: ADB, 2011, pp.4-9.

11) DeRosa, Dean 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ASEAN Example. Research Report 103.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995, pp.13-17

12) ASEAN Secretariat, ASEAN Investment Report, 1983, pp.6-9.

13) 박변순, 전계논문, p.1.

14) Imada, Pearl, and Seiji Naya, AFTA the Way Ahead, ISEAS, 1992, pp.5-8.

15)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는 공산품을 관세인하품목과 예외품목으로 분류하고 관세인하품목은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다. 또한 농산물도 즉시 관세인하대상품목, 일시예외품목,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였다.(ASEAN Secretariat, ASEAN Investment Report, 1997. pp.2-5..

안 선발 6개국은 2010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한 역내관세를 0~5%로 낮추고 후발아세안 4개국도 2015년까지 모든 제품에 대해 역내관세를 0~5%로 낮출 계획이다<sup>16)</sup>.

1997년에는 아세안 정상들이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을 채택하고 아세안 역내의 장벽을 제거하여 재화, 용역 및 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1998년에는 아세안 비전 2020의 실행프로그램(1999~2004년)인 하노이 행동계획(Action of Hanoi Plan)을 채택하였다.<sup>17)</sup>

또한 2000년에는 아세안 국가들간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후발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프로그램인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를 채택하였다<sup>18)</sup>. IAI는 1차 작업계획(IAI Work Plan 2002~2008)을 끝내고 2차 작업계획(IAI Work Plan 2 2009~20015)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에는 아세안 정상들이 제2차 발리선언(Bali concord II)을 통하여 2020년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것으로 선언하였다.<sup>19)</sup> 그 이후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설립시기를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겼다.

### III. 아세안의 한계와 아세안 경제통합의 평가

#### 1. 아세안의 태생적 문제점

##### 1) 10개국의 사회문화적 차이

아세안은 세계에서 정치문화, 종교적, 인종적으로 다양성의 스펙트럼이 가장 크게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세안의 정치체제는 전제군주제에서 다당제 민주주의, 내각제, 군사독재, 1당 독재까지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사회이다. 아세안의 종교도 불교, 이슬람교 등의 특정 종교가 국민들의 삶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종교를 아편처럼 적대시하는 공산국가도 있다.

16) 박영선, “아세안 경제통합 어디까지 왔나”, KOTRA, 2012, pp.1-2.

17) Nitya Pibulsonggram, op.cit., p.17.

18) Vittaya Vejajiva, can ASEAN adapt or strengthen its integration using the experience of the EU, strengthening ASEAN integ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2001, p.138.

19) 이충열,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동남아시아 연구』 21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2011, p.144.

이처럼 다양한 아세안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차이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통합의 글로벌 선두주자인 EU 회원국들은 대부분 기독교 문화권이고, 최근 경제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남미공동시장은 대부분 가톨릭 문화권이다.

## 2) 회원국간 큰 경제력 격차

<표 1>에서 보듯이 아세안은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미만의 저개발 국가들이고, 세계 최고의 빈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세안 회원국중 최빈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달러수 준이지만, 최고소득국가는 5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아세안은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 아세안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가 가장 작은 라오스보다 경제규모가 100배나 크다. 또한 아세안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아세안의 회원국들간의 경제규모와 소득차이는 역내통합과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평균적으로 25%로 EU의 역내 무역비중 50%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sup>20)</sup>. 이처럼 아세안은 역내 경제력 차이가 크고 역내 무역비중이 낮아 AFTA만으로는 자립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기 힘들다.

<표 1> 아세안 국가별 경제 현황(2011)

국 가	GDP (십억불)	1인당 GDP (달러)	수 출 (백만달러)	수 입 (백만달러)	무역액 (백만달러)
인도네시아	845.7	3,509	203,501	177,451	380,952
태 국	345.6	5,394	226,380	228,878	455,258
말레이시아	278.7	9,700	227,196	187,837	415,033
필리핀	213.1	2,223	48,189	60,149	108,337
싱가포르	259.8	49,271	411,870	366,003	777,874
베트남	122.7	1,374	87,847	126,546	214,393
미얀마	51.9	832	7,964	13,637	21,601
브루나이	15.5	36,584	11,252	6,267	17,519
캄보디아	12.9	852	6,174	10,732	16,905
라오스	7.9	1,204	2,958	4,603	7,560
아세안	2,153.9	3,538	1,233,331	1,182,102	2,415,433

자료 : ASEAN(2012)

20) 이충열, 전개논문, p.166.

### 3) 역내 선발개도국들의 후발개도국들에 대한 지원 부족

선발 아세안 국가들중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인도네시아이고,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경제규모나 경제발전 단계적으로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는 인도차이나반도 후발 아세안국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할 부분이 많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최근 2013년 또다시 제2의 금융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싱가포르는 아세안에서 경제상황이 제일 양호하여 후발 아세안 국가들을 지원할 여력이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모델이 자국기업의 육성에 따른 경제성장이 아닌 외국기업의 유치에 기반을 둔 수출과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어 후발개도국의 국내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모델과 상이하여 산업협력에 한계가 있다.

### 4) 아세안의 자체 브랜드 부재와 시설 인프라와 금융인프라 부족

선발 아세안 국가들은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였으나, 제조업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하면서 위기를 느끼고 있다. 특히 아세안의 공업화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아세안은 기술역량 확보가 취약하다<sup>21)</sup>. 이처럼 아세안은 후발 아세안국가들뿐만 아니라 선발 아세안 국가들도 자체 브랜드가 없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

또한 후발아세안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의 토대가 되는 항만, 도로 등의 시설인프라가 열악하고 금융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캄보디아, 라오스에는 증권거래소가 이제 막 개설되었다.

### 5) 아세안의 비협조적 연성시스템

아세안 회원국들은 포괄적인 아세안정책과 개별 국가들의 정책이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아세안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sup>22)</sup>.

그동안 아세안은 엄격한 규칙에 기초한 경제협력에 실패하였다<sup>23)</sup>. 아세안 회원국들간에 사회문화적으로 상이한 아세안이 40여년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세안의 독특한 운영방식인 내정불간섭주의와 주권존중에 있다<sup>24)</sup>. 그동안 아세안은 이 두원칙에 의해 국제사

21) 박변순, 전계논문, p.15.

22) Lee Poh Ping, op.cit., p.21.

23) Paul J Davidson, op.cit., p.108.

24) ISEAS, op.cit., p.8.

회가 회원국들의 비민주적인 정책을 비난하여도 개입하지 않았다. 또한 아세안은 협의와 합의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미약한 연성조직으로 회원국에 경제위기가 닥쳐도 강력한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EU가 남부유럽 재정위기 때 강력하게 개입하고 협력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 2. 아세안 경제통합의 평가

아세안은 2015년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아세안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7년 아세안 창설 40주년을 맞아 아세안 공동체 형성의 헌법 역할을 하게 될 아세안 헌장과 아세안경제공동체 설립에 서명하고 2015년까지 아세안을 단일시장과 단일 생산기반 지역으로 구축하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단일통화는 없으나,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공<sup>25)</sup>의 아세안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 통합경제권이다. AEC가 구축되면 아세안 각국의 기업은 역내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속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해 추진목표를 점검하고 있는데 2008~2011년 기간동안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추진목표를 67.5% 달성했고, 단일시장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은 65.9%, 경쟁력 높은 지역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은 67.9%, 균형경제 발전 계획은 66.7%, 세계 경제와의 통합계획은 85.7% 달성했다고 평가했다.<sup>26)</sup>

아세안을 거대 경제블록인 EU와 NAFTA와 비교해보면 EU가 회원국간의 재정통합이외의 상품, 서비스, 자본자유화, 노동이동, 경쟁법, 관세동맹 등에서 통합을 이루어냈지만, 이에 비해 아세안은 상품, 서비스 등에서 부분적 통합을 이루어냈을 뿐이다<sup>27)</sup>.

아세안은 경제통합의 상징인 EU의 유로와 같은 단일통화의 도입계획도 없다. 특히 EU는 EU를 대표하는 의회, 법원이 있지만, 아세안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아세안은 NAFTA와 비교해도 NAFTA는 상품교역에서 완전통합을 이루었지만, 아세안은 부분적 통합을 이루었을 뿐이다<sup>28)</sup>. AFTA 출범 이후 아세안 회원국간에는 가속관세 인하가 적용되었으나 아세안의 80% 정도의 높은 역외 무역의존도는 낮아지지 않았다.

25) 아세안의 역내 인력이동 자유화는 조사서비스, 간호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건축서비스 등에 상호인정조약(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여 역내에서 필요 인력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박영선, 전계논문, p.3)

26) ASEAN Secretariat, ASEAN Investment Report, 2012, pp.6-9.

27) Hill Hal & Jaynt Menon., op.cit, 12-15..

28) 박변순, 전계논문, p.3.

아세안 경제통합은 양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적 역량의 부족과 회원국들간의 상반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아세안의 내부적인 역량만으로 아세안 경제통합을 완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아세안의 내부적인 한계를 한아세안 통상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IV. 한아세안의 Win-Win 통상협력전략

제2장과 제3장에서 아세안의 변화와 아세안의 한계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통상정책이 아세안의 변화와 아세안의 한계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아세안의 통상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 모두 통상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한아세안 통상관계

###### 1) 한아세안 무역

한국은 아세안과 1969년 부문별 대화관계(Sectoral Dialogue)를 시작으로 1991년 7월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승격하였고,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sup>29)</sup>,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sup>30)</sup>. 국제통상무대에서도 한국과 아세안은 APEC 포럼과 아세안지역 포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sup>31)</sup>.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1980년대에서 1990년 사이에 급증하였다. 1980년대 한국의 교역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였지만, 1993년 10%를 증가하였다<sup>32)</sup>. 2010년 이후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지역이며, 한국은 아세안의 5대 교역 상대국이다<sup>33)</sup>. <표 2>에서 보듯이 한아세안간 무역규모는 1989년 82억달러에서 2010년 973억 달러로 급증하여 20여년간 12배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은 1990년 이후 아세안과의 무역에서 무역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29) Chanin Mephokee, ASEAN-Korea Economic Cooperation, ISEAS, 2007. p.70.

30) 아세안은 역외국가들과 대화관계를 수립하여 역외국가들과 다양한 회의와 협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은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등이다.

31) Chan Heng Chee, ASEAN and Korea Emerging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ISEAS, 1995, p.1.

32) Yen Kyun Wang, Overview of ASEAN-South Korea Economic Relations, ASEAN and Korea Emerging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ISEAS, 1995, pp. 2-3.

33) 한국의 아세안내에서 시장점유율은 5.0%이고 한국내에서 아세안의 시장점유율은 9.4%이다(박번순,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9, p.12).

〈표 2〉 한국과 아세안 무역동향

(단위 : 백만 불)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 체	대아세안	비중	전 체	대아세안	비중	전 체	대아세안
2008	422,007 (13.6)	49,283 (27.2)	11.7	435,275 (22.0)	40,917 (23.6)	9.4	-13,268	8,366
2009	363,534 (-13.9)	40,979 (-16.8)	11.3	323,085 (-25.8)	34,053 (-16.8)	10.5	40,449	6,926
2010	466,384 (28.3)	53,195 (29.8)	11.4	425,212 (31.6)	44,099 (29.5)	10.4	41,172	9,096
2011	555,214 (19.0)	71,801 (35.0)	12.9	524,413 (23.3)	53,121 (20.5)	10.1	30,801	18,680

자료: 한국무역협회(2012)

## 2) 한아세안 투자

〈표 3〉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아세안투자는 고임금, 지가상승, 지속적인 원화 절상으로 인해<sup>34)</sup> 1989년 9천만 달러에서 2010년 43억달러로 약 47배정도 증가하였다. 이에비해 아세안의 한국투자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대아세안 투자는 베트남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의 아세안 투자가 후발아세안국인 CLMV보다 선발 아세안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업종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고 건설업과 도소매업등의 서비스업 투자는 미흡하다.

〈표 3〉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

(단위 : 천불)

국 가	2010년		2010까지의 누계	
	신고기준	투자기준	신고기준	투자기준
브루나이	2,963	2,204	9,806	5,265
캄보디아	122,731	116,193	2,893,421	1,683,223
인도네시아	1,761,759	864,667	8,452,951	4,507,895
라오스	55,486	17,896	614,284	159,498
말레이시아	1,706,852	1,555,080	4,846,890	2,917,331
미얀마	233,038	197,339	4,022,351	646,052
필리핀	388,510	227,794	2,609,957	1,527,781

34) Yen Kyun Wang, op.cit., p.20.

국 가	2010년		2010까지의 누계	
	신고기준	투자기준	신고기준	투자기준
싱가포르	494,520	398,847	4,332,490	3,437,381
태국	106,560	79,945	1,741,820	1,184,060
베트남	2,158,938	851,378	12,980,093	6,468,138
아세안	7,031,358	4,311,343	42,504,063	22,536,623
세계	33,477,479	23,284,646	244,271,710	165,836,63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표 4> 한국의 아세안 업종별 투자(2010)

(단위: 백만불)

	업종	총계
한-브루나이	제조업(0.4) 건설업(2.4)	2.8
한-캄보디아	제조업(36) 금융 및 보험업 (19) 도매 및 소매업 (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 건설업 (8) 농업, 임업 및 어업 (6) 광업 (3) 기타 (2)	102
한-인도네시아	제조업 (846) 광업 (13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5) 농업, 임업 및 어업 (73) 기타 (68)	1200
한-라오스	도매 및 소매업 (10) 광업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8) 농업, 임업 및 어업 (0.7) 제조업 (0.4) 숙박 및 음식점업 (0.3) 건설업 (0.2)	13.4
한-말레이시아	제조업 (57) 광업 (4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도매 및 소매업 (20) 제조업 (12) 건설업 (3) 기타 (2)	157

	업종	총계
한-미얀마	광업 (352) 운수업 (62) 제조업 (6) 기타 (2)	442
한-필리핀	조업 (9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6) 건설업 (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 숙박 및 음식점업 (12) 도매 및 소매업 (9) 기타 (17)	206
한-싱가포르	금융 및 보험업 (470) 제조업 (1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5) 운수업 (72) 도매 및 소매업 (51) 광업 (3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1)	908
한-태국	제조업 (536) 도매 및 소매업 (15) 광업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금융 및 보험업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기타 (2)	580
한-베트남	제조업 (500,232) 광업 (169,2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1,194) 도매 및 소매업 (81,516) 건설업 (79,34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8,788) 금융 및 보험업 (27,226) 기타 (27,749)	1,025,300

자료: KOREA-ASEAN CENTER(2011)

### 3) 한국의 아세안 ODA 지원

<표 5>에서 보듯이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 1991-2010년동안 한국의 대외무상원조

의 20%에 해당하는 아세안에 대한 무상원조를 4억9천2백만불을하였다<sup>35)</sup>. 또한 한국은 2009년 6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한 제주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공적개발원조(ODA)를 2015년까지 4억달러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표 5〉 한국의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비중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합계
	아세안	아세안 이외						
2005년	71.70	199.53	2.81	37.02	17.10	0.25	22.94	351.35
2006년	62.13	126.67	29.94	45.15	23.38	0.95	28.28	316.5
2007년	117.63	123.55	15.87	64.69	54.54	3.36	35.99	415.63
2008년	134.75	98.51	11.21	87.84	63.62	1.55	54.89	452.4
비중(%)	29.8	21.8	2.5	19.4	14.1	0.3	12.1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1)

상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아세안의 통상관계는 한국이 아세안으로부터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고, 투자부분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가 제조업에 편중되어 이루어졌고, 투자지역도 베트남을 제외하면 선발아세안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아세안 ODA와 투자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시너지효과가 발휘되고 있지 않다.

## 2. 아세안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한국의 투자전략

그동안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상당부분 동남아의 저임금을 활용한 국내 사양산업의 이전과 우회 수출기지로 이루어졌다. 즉,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한국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한국과 아세안의 중장기적인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이 아세안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점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면 단순히 한국의 필요에 의한 단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이 아세안의

35) KOICA, 『한국의 무상원조실적』, 2012.

역내 통합 프로그램을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통상 협력사업을 능동적으로 아세안측에 제안하고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 3. 아세안 연계성 강화에 부합하는 투자와 협력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와 개발협력은 대부분 아세안 개별국가를 상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추진으로 단일 시장화되고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회원국간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역내 경제통합 강화는 역내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네트워크와 아세안 국가들간의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증대하고 있다<sup>36)</sup>.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사업으로 아세안 국경간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의 회원국간 연계성을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 등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와 한국정부의 아세안 개발협력 사업은 아세안의 연계성 강화방안에 부합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아세안에 대한 한국기업의 민간투자와 한국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국기업이 아세안 하드웨어 연계성 사업중에 하나인 통신망 구축에 민간투자를 하고 한국정부가 통신망 구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도로확충사업에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의 민간기업이 아세안 소프트웨어 연계성 사업인 교육개선의 컨설팅사업을 한다면 한국정부가 해당국가의 교과서 등의 교육용품을 무상지원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병행하여 교육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민간협동의 아세안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4.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확대

한국기업의 아세안에 대한 임가공진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수반된 한국의 설비·원부자재 수출도 아세안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한아세안 통상관계로 인해 한국과 아세안간에는 수직적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특히 한국이 아세안과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

36) Nitya Pibulsonggram, op.cit., p.17.

고 투자도 한국에서 일방적으로 아세안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한아세안 통상관계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대아세안 ODA 등을 통해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과학기술 등을 이전하여 아세안의 경쟁력 있는 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한국과 아세안 국가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아세안 지역의 현지 개발협력을 통한 아세안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로 한국의 원자재 및 부품의 원활한 공급 확보와 만성적인 대안세안 무역수지 흑자를 개선해야 한다.

## 5. 아세안의 생산경제에서 소비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대응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는 아세안 서비스 협정에 의해 교육, 관광, 의료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환경서비스, 전문서비스, 건설해상운송, 유통, 통신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sup>37)</sup>.

한국이 아세안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출하려면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협정에 따른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 서비스산업의 아세안 진출은 한국 제조업의 진출에 비해 미비하다. 특히 한국 유통업체의 아세안 진출은 아세안 유통시장에 활발히 진출한 일본에 비해 미약하다.

아세안은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높은 시장으로 변모되고 있고, 유통시장도 자유화되고 있다. 한국 유통업체는 한국 제조업체 비해 글로벌 기업이 적고, 해외진출 경험도 많지 않다. 특히 한국 유통업체는 한국 제조업체처럼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의 유통업체는 세계시장 진출의 시험 및 첫무대로 아세안을 활용하는 방안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자유화에 발맞추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6. 아세안 국가별 차별화된 투자전략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포괄적으로 한아세안 FTA를 체결하였지만, 일본은 일아세안 FTA를 체결하기 전에 아세안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쌍무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아세안 10개국중에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7개국과 쌍무적 FTA를 추진하였다.<sup>38)</sup>

한국도 아세안지역에서 FTA효과를 극대화하고 통상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려면 아세안 개별국가들과 FTA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이 아세안의 변화로 예상되는 각국의 다양한

37) 박영선, 전계논문, p.3.

38) 박변순, 전계논문, p.13.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아세안 통합을 위해 아세안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선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로 아세안의 통합을 위해 발생하는 개발수요에 투자만을 고려하지 말고 개발협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아세안 회원국별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한국의 투자와 한국의 대아세안 유무상원조를 상호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개발경험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하는 아세안의 후발개도국에게 한국의 개발경험을 한국의 투자와 연계하여 전수하여 수익도 창출하고 투자와 원조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상품경쟁력이 미약한 아세안의 저개발 국가로부터 한국으로 수입을 증대하려면 아세안 국가중에서 최빈개도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대한 특혜관세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 V. 결 론

아세안은 6억의 인구나 GDP 규모가 1.5조억달러인 거대경제권이다. 아세안은 1980~90년대 저임금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토대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7~8%의 고도경제성장을 시현하면서 거대시장으로 성장하여 동아시아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의 대표적인 경제권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아세안은 회원국간 경제규모와 소득격차가 크다. 특히 CLMV 국가들과 선발 아세안 6개국간의 경제력 격차가 역내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은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세안은 한국의 수출시장과 투자진출지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원개발과 경제협력 등에서 다각적인 통상협력이 가능한 지역이다.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지속하려면 한국은 아세안의 통상파트너로서 아세안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아세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통상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지속적인 대아세안 무역수지 흑자에 의한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통상협력을 증대시키려면 한국의 대아세안 ODA사업이 아세안의 변화와 개발수요에 부합되게 추진되어 아세안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의 대아세안 ODA 사업과 한국 기업의 대아세안 투자 및 기술이 상호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아세안의 중소기업과 산업을 육성하여 이를 통해 아세안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아세안의 수직분업 형태의 통상관계를 다양한 수평분업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들의 대아세안 ODA 및 통상협력과는 차별화된 한국의 경제개 개발 경험과 아세안의 경제환경을 접목한 한아세안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선발아세안과 제조업 중심의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를 아세안의 통합 발전전략과 이에따른 아세안 회원국들의 개발수요를 분석하여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후발개도국의 개발 수요와 국경간 연계사업에서 새로운 투자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 일변도의 대아세안 투자를 지양하고, 생산시장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화하는 통합 아세안의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통산업의 아세안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준협, “아세안+3 지역경제통합의 조건과 발전과정”, 「동남아시아 연구」 21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2011.
- 박영선, “아세안 경제통합 어디까지 왔나”, KOTRA, 2012.
- 박번순, “아세안 경제협력의 진화와 평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연구」 23권 2호, 한국동남아학회, 2013.
- 박번순, 「한국-아세안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9.
- 신윤환, “아세안 연계성과 동아시아 지역통합”, 서남포럼, 2011.
- 이충열,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동남아시아 연구」 21권 3호, 한국동남아학회, 2011.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연감」, 2010-2012.
-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2010-2012.
- 한국수출입은행, 「유상ODA 연감」, 2010-2012.
- Korea-ASEAN Center, 「아세안통계」, 2010-2012
- KOICA, 「무상ODA 실적」, 2010-2012.
- ASEAN, ASEAN Community in Figures, 2011.
- ASEAN Secretariat, ASEAN Investment Report, 1980-2012.
- Chanin Mephokee, ASEAN-Korea economic cooperation, ISEAS, 2007

- 
- Chan Heng Chee, ASEAN and Korea Emerging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ISEAS, 1995.
- DeRosa, Dean A.,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The ASEAN Example. Research Report 103.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995.
- Hill Hal & Jaynt Menon, ASEAN economic integration: features fulfillments and the failures and the future. ADB Working Paper Series on Regional Integration, No.6. Manila: ADB, 2011.
- Imada, Pearl, and Seiji Naya, AFTA the Way Ahead, ISEAS, 1992.
- Lee Poh Ping, ASEAN, South Korea, and the Asia-Pacific Region, ASEAN and Korea Emerging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ISEAS, 1995.
- Nitya Pibulsonggram, Strengthening ASEAN Integ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2001.
- ISEAS, Know Your ASEAN, 2012.
- Paul J Davidson, ASEAN The Evolving Legal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Times Academic Press, 2002.
- Termsak Chalermpanupap, ASEAN Political Cooperation, Strengthening ASEAN Integ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2001.
- Vittaya Vejjajiva, can ASEAN Adapt or Strengthen its Integration using the Experience of the EU, Strengthening ASEAN Integration Conference Proceedings, Centre for European Studies t Chulalongkorn University, 2001.
- Yen Kyun Wang, Overview of ASEAN-South Korea Economic Relations, ASEAN and Korea Emerging Issues in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ISEAS, 1995.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ASEAN and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Young-Moon Kang\*

View of the recent expansion of ASEAN, Korea must take some measure to cope with them. This paper is aim for suggesting on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through transition of ASEAN.

Generally speaking Southeast Asia can be divided into mainland Southeast Asia and maritime Southeast Asia. ASEAN is association Southeast Asian nations.

Korea has been a dialogue partner of ASEAN since 1991, and through the ASEAN plus three try to come true East Asian cooperation. but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Korea in ASEAN remains very low to compare with China and Japan.

Korea and ASEAN have not become the closest of friends in East Asian even though the two are good commercial partners.

Korean ODA for ASEAN must be linked with Korean firm's trade and investment for ASEAN to show synergy effect. Korea should analyze ASEAN's plan for ASEAN Economic Community and find potential development needs of ASEAN.

Korea and ASEAN want to become ASIA's FTA Hub. such as great vision can come true if Korea cooperate sincerely with ASEAN.

**Key Words** : ASEAN, FTA, AEC.

---

\*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wto3@chonnam.ac.kr)